

팬츠장식의 변천과 내적 의미 연구

- 1969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잡지에 나타난 장식을 중심으로 -

Evolution of Pants Decorations in National Fashion Magazines from 1969 to 2005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정지연
경북대학교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조교수 권기영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Ji-Nyun Jung

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Gi-Young Kw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배경 | V.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and intended meanings of decorations in women pants. Cross correlation was used to analyze 1829 pictures which appeared in national fashion magazines from 1969 to 2005. Three analysis categories were used: 1. type of decoration, 2. style, 3. fabric.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were as follows: (a) the decoration gave salience to the expressive function on the pants by merging different things, (b) the decoration acted on expressive media of new feminine beauty, and (c) the decoration reflected cultural identity through the addition of elements that represents different cultures or subcultures.

주제어(Key Words) : 장식(decorations), 패션잡지(fashion magazines), 팬츠(pants), 트렌드(trend)

I. 서론

중세이후 남성의 대표적 상징으로서 여성에게 금기시되었던 팬츠는 19세기 말이 되면서 겉옷으로 여성들에 의해 착용되기 시작하여 현대 여성 복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아이템으로 정착되었다. 팬츠는 20세기 말에 나타났던 다양한 현상들과 함께 더욱 복잡하고 다의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날 현대 패션에서 그 가치와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식적 표현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예술적 표현 및 개성을 표출하는 매체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팬츠 장식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에서 장식은 여성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나 16-17세기의 남성 팬츠에서 이러한 장식이 많이 나타났으며,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남성 복식은 장식성을 배제하고 단순화되어 현대 남자 복식의 원형을 이루었고 화려한 색상과 장식성 등은 여성복에 제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여성에게 받아들여진 팬츠는 장식이 배제된 기능적 형태가 많았으나 현대로 오면서 다시 장식성이 부가되었다.

장식은 20세기에 들어 패션이 도덕적, 미적 규범과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미학적 매체이자 표현의 수단이 됨에 따라 세련됨이나 개인적 쾌락과 더불어 중시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패션에서 키치(Kitsch), 혼성모방, 패러디 등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장식적인 측면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므로 장식은 감성을 중시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에게 개성 표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패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선행 연구로는 서양에 한정된 팬츠의 사적 흐름이나 상징성과 의미 등에 관한 연구(김미정, 1987; 김승혜, 2004; 이재영, 2007)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이상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서양 팬츠가 도입된 이후 발전된 경향을 장식과 연관시킨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로 패션전문 잡지가 발간된 1969년에서 2005년까지의 패션잡지에 나타난 팬츠 장식의 경향을 좀 더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패션 잡지는 세계의 패션 동향, 유행 스타일 제시, 의류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등을 주 내용으로 패션 전반에 걸친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독자에게 패션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패션 광고는 명확한 타겟에 의한 높은 소구효율과 상품의 재현을 통해 당시의 시대사조를 표현해 주므로(이은숙, 김새봄, 2005) 특정 시기의 패션 경향을 유추하는데 유리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의 장식이 기능적이고 남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팬츠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

하고, 의복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 요소로서 장식의 내적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팬츠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팬츠(pants)란 '허리에서 시작하여 힙과 양쪽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의 옷'을 말한다(패션콘서트전문위원회, 1999, p. 657). 서양에서 팬츠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trousers, breeches, pants 등이 있고 불어로는 pantalon, 독일어로는 hosen, 스페인어로는 pantalones, 이태리어로는 pantaloni 등이며 동양에서는 한국의 pajjis, 인도의 dhotis, 일본의 hakamas 등(Benaïm, 2001, p. 2)이 각각 팬츠의 일반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팬츠의 우리말인 바지라는 용어는 '양쪽으로 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랑이가 나누어져 있는 형태의 하의'를 말하는 것으로 남자가 입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한데(이재영, 2007), 팬츠라는 말이 최근에는 남녀 관계없이 바지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으므로(이경희, 김연희, 신은영, 이종숙, 정명희, 2006) 본 논문에서는 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박춘순(1991)의 연구를 근거로 한 팬츠의 기초형태는 경의(經衣, Leggings)와 요의(腰衣, Breech-cloth)라 할 수 있으며, 발목에서 무릎에 이르는 형태인 경의가 위로 연장되어 허리에 두르는 요의에 이어짐으로써 팬츠로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승혜, 2004에서 재인용). 팬츠의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정 짓기 어려우나 문헌상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동양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최초의 기마민족인 스키타인들이 가장 연관이 깊다. 게르만 민족은 대이동으로 스키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팬츠 착용을 배웠고 이들의 로마 침투로 인해 기마 전투가 빈번해짐에 따라 로마인들도 팬츠를 착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착용된 팬츠는 중세 말기로 갈수록 외의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장식성이 강해졌다. 현대의 시각에서 장식성은 여성적 요소로 볼 수 있는데 16-17세기의 남성 팬츠에서 많은 여성적 특성의 장식이 나타났다. 르네상스 시대는 체형을 과장하여 권력과 재산을 과시하고자 하여 화려한 장식을 사용하였는데, 팬츠 형태인 오 드 쇼오스(haut de chausses)는 화려한 직물이 이용되었고 패드, 코드피스(codpiece), 슬래쉬(slash) 등의 장식이 사용되었으며(그림 1), 이 중 그레그(gegues)에는 옆선에 광택의 새틴이나 벨벳의 밴드로 트리밍을 대기도 하였다. 바로크 시대의 오 드 쇼오스는 무릎아래까지 내려온 바지로서 끝은 리본으로 뺐으며, 옆선은 트리밍과 단추, 루프 다발 등으로 과대하게 장식되었는데, 이 중 랭그라브(ringrave)는 여러 색상의 리본장식이 과도하게 달려 여성적인 장식이 주도적으로

나타났다(그림 2). 로코코시대는 향락주의가 만연하던 시기로 서 밝고 화려한 장식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시기의 켈로트는 무릎 밑까지 오는 통 좁은 바지로 다리의 곡선이 그대로 나타나 육감적인 남성미를 과시했으며 단추 덮개인 르퐁(le pont)으로 오프닝을 가려 세련된 모양이었다(정홍숙, 2007, pp. 161-274). 19세기는 서양 복식문화가 근대화되고 시민 복식이 정착되는 시기로, 산업혁명 이후 남성 복식은 장식성을 배제하고 단순화되어 현대 남자 복식의 원형을 이루었는데 화려한 색상과 장식성 등은 여성복에 제한되기 시작했다.

여성에게 팬츠는 중세 이후 19세기 초까지 겉옷으로서의 형태는 존재하기 못했고 내의로 착용되었을 뿐이었다(Lurie, 1986, p. 210). 16세기 이후의 상류사회에서의 팬츠는 방탕한 여자들이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인지되었으며 광부, 어부, 농부, 무용수, 여배우 등 하위직업의 여성들에게 입혀지는 의복이었다. 남성의 팬츠를 최초로 착용했던 여성은 1420년 경 십자군 전쟁 당시의 잔 다르크(Jeanne D'arc)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갑옷 속에 내재된 정치적인 힘과 정신세계를 내포하였으며 남성복장이 여성에게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이데올로기에서는 이단의 마녀로 취급되어 파멸로 이끌었다. 이후 여류소설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는 여성해방과 자유연애를 주창하였고 팬츠를 즐겨 입었으며 패션의 역사에서는 최초의 남장 차림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블루머(Bloomer)는 1850년 여성 의상 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블루머 스타일의 팬츠를 착용하여 남성과 평등하게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 주었다(그림 3). 그러나 여성의 팬츠 착용은 지위와 권리에 연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 1920년대까지는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었으며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공식석상에서의 팬츠착용은 괴상한 성격의 보헤미안이나 레즈비언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Lurie, 1986, p. 190).



〈그림 3〉 Portrait of Bloomer. 1850. (Banaim, 20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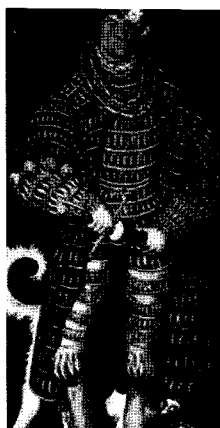
2. 여성팬츠의 시대별 장식 변화

여성의 팬츠 착용 과정과 시대별 변화를 장식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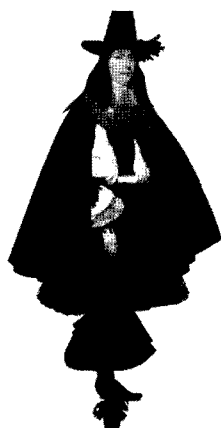
19세기 말-1910년대 1880년대와 1890년대 독립성이 강한 많은 신여성은 여성 참정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블루머즈, 니커보커즈, 터어키 풍의 팬츠가 적은 수이지만 착용되어 20세기 팬츠 착용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국적 복식으로 나타난 터키풍의 팬츠에는 개더 등의 장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부 이브닝 웨어로 입혀질 뿐이었으나 후에 여성복으로서 판탈롱의 정착을 예언한 것이다(김미정, 1987). 또한 스포츠 웨어로 바지가 착용되는 한 여성들이 팬츠를 입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대상이 아니었다(이재영, 2007). 이 시기에 드로어즈는 여성들의 보편적인 옷이 되었고, 댄서들의 페티코드 속에는 프릴이 달린 드로어즈가 보여졌다. 한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여성들은 군수품 공장에서 남자들을 대신하여 일을 해야 했으므로 작업장에서 남성복장인 편안한 팬츠와 오버롤을 착용했는데(그림 4) 기능적인 개더 장식이 사용되었다.

1920-1930년대 여성들은 남성화되어 보이쉬 스타일이 나타났고 자동차의 보급과 스포츠의 대중화로 팬츠는 여성 의복의 필수품이 되었다. 이 시대의 다양한 팬츠 형태로는 라운지 파자마, 각테일 파자마, 주름잡힌 쇼츠, 조드퍼즈, 켈로트 등으로 개더나 플리즈 등의 주름 장식이 사용된 것이었으며(그림 5),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인되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김승혜, 2004).

1940-1950년대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 일을 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작업장과 공장에서는 여성들이 팬츠를 입기도 했으며 일상복으로도 팬츠를 많이 입게 되었다. 조드퍼즈 스타일의 팬츠가 유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팬츠는 여성 의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



〈그림 1〉 slash, 1530. (정홍숙, 2007, 183)



〈그림 2〉 rhingrave, 1660.(정홍숙, 2007, 217)



〈그림 4〉 군수품공장노동자, 1916.(Crane, 2000, 39)



〈그림 5〉 Pagamas, 1927년.(Banaim, 2001, 73)



〈그림 6〉 pedal pushers, 1942년.(Banaim, 2001, 96)



〈그림 7〉 Hippies (Polhemus, 1997, 64)

로 완전히 정착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실용성을 강조한 팬츠 착용이 확대되었다. 소녀들의 대중교통으로 자전거가 많이 이용되었는데, 이때 ‘페달 푸셔’로 불리는 미국 스타일의 팬츠(그림 6)를 입기 시작하였다(Bond, 1992). 이때의 장식은 허리의 개더 등으로 이전의 이브닝드레스와는 구별되는 기능적인 형태를 보여주었다. 1950년대에는 팬츠 착용이 일반화되어 캐주얼웨어에서 정장으로까지 애호되어 새로운 유행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중세 이후 서양복식사상 남, 여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변화하여 패션에 있어서도 평등해지려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 시기 팬츠는 대체적으로 몸에 잘 맞으면서 발목이나 장판지와 발목 중간까지 길이의 밑부리가 좁은 테이퍼드 형태가 많았으며 합성섬유의 발달은 스트레치 직물을 생산하여 몸에 꼭 맞는 스트레치 팬츠의 착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식이 거의 없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1960년대 사회와 경제가 활발히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시작한 시기로 사회적 관념이 바뀌어 여성, 흑인 등 상대적 약자집단이 대두된 시기이며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늘어난 젊은이들이 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취향에 맞는 발달함과 새로움이 추구되었다. 이 시기에 여성 팬츠는 사회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한 발 더 진보할 수 있는 기폭제역할을 하는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는데, 켈로트 스커트가 하이패션에 새로운 의복으로 등장하였고 1960년대 중반에는 팬츠 수트가 입혀지기 시작하였다. 또, 이 시기에 출현한 히피는(그림 7)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이국적 취향으로 복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김미정, 1987) 패치워크, 애플리케, 올풀기 등의 다양한 장식이 바지에 시도되었으며 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70년대 이 시기에는 미니에 이어진 핫팬츠가 잠시 나타나다가 우아한 클래식 스타일의 엘레강스 룩으로 바뀌어 미

니멀 룩, 레이어드 룩, 레트로 룩, 에스닉 룩, 빅 룩, 유니섹스 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김승혜, 2004) 청바지는 20세기를 대표할 만한 대중적인 의복이 되었다. 70년대의 사회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생겨난 핑크(그림 8)는 안전핀을 장식하거나 옷을 찢어 입고 인체를 죄는 팍 끼는 팬츠를 착용하였으며, 찢기, 헤치게 하기, 금속 등의 다양한 실험적인 장식은 현대 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운동복의 캐주얼화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1976년 이후에는 신축성 있는 트랙수트, 조강복 등이 일상복이 되었다. 1978년-1979년에는 디스코 댄스의 선풍적인 인기로 디스코 팬츠의 유행으로(Bond, 1992) 허리의 주름 장식이 보여졌다.

1980년대 냉전의 종식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세계의 패션 경향에 있어 다른 문화와 주제가 복합된 다양성과 개성이 나타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팬츠(그림 9)는 일자형, 테이퍼드 형, 미니 블루머, 켈로트, 니커보커즈, 버뮤다 쇼츠, 테일러드한 형, 시가렛 라인, 배기, 서스펜더 팬츠, 스키 팬츠, 조드퍼즈의 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김미정, 1987). 여성복의 매니시화 경향으로 남성과 동일하게 보이는 각이 진 넓은 어깨의 재킷과 함께 팬츠를 착용하였고 허리의 주름 장식은 더욱 남성스런 경향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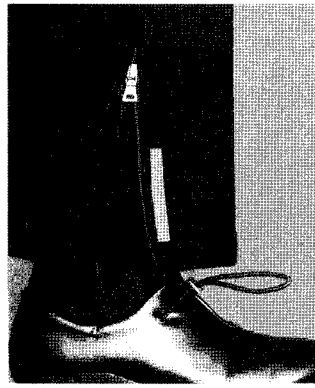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패션의 주요 키워드는 스타일보다는 세계화로 세계인의 생활 변화를 기반으로 패션에 있어서도 새로운 글로벌리즘이 대두되었다. 거리 패션의 영향력은 매우 커졌고 미니멀리즘, 민속풍, 복고풍 등 다양한 패션이 유행되었으며 스포츠 웨어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되었다(그림 10). 복고풍에 신소재의 티데일이나 트리밍을 한다거나 미래지향적인 요소에 민속적인 이미지를 결합하였으며, 성별, 연령, 계절, T.P.O. 등 패션에 적용되었던 전통적인 기준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스포츠 룩을 출근복으로 입기도 하고 이브닝 웨어의 디자인을 캐주얼로 입기도 하는 등 아무런 구분이 없



〈그림 8〉 Punks
(Polhemus, 1997. 8)



〈그림 9〉 slacks and shorts. 1984년. (Ewing, 1992).



〈그림 10〉 Prada Sports. 1998-99. (Banaim, 2001.174)



〈그림 11〉 Gucci. 1999. (Banaim, 2001.228)

는 패션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김승혜, 2004). 장식에 있어서도 히피나 펑크, 힙합 등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요소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11).

를 활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 요약

장식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식 유형, 스타일, 소재별 분석 유목을 <표 1>에서와 같이 구분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자료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1969년 '의상' 창간 이후부터 1981년까지, 멧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Elle는 1993년부터 2005년 12월호까지의 잡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상은 우리나라 최초 패션 전문지로 1969년부터 1981년까지 발행되었고, 멧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나라 패션 전문지로 발행되었으며, Elle는 1992년 11월 발간된 국내 최초 해외라이센스 잡지로서 가장 선호되는 잡지 중 하나이면서 발행연도와 발행부수가 안정적이며 세계유행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패션산업과 소비자의 가치변화를 반영하여 트렌드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는 패션전문잡지이다. 분석 범위는 1969년부터 2005년까지 게재된 국내외 패션 브랜드 패션광고와 패션화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를 위해 선택된 패션사진은 계절적 변수를 최소화하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연간 4분기로 축소하여 사진을 추출하였다. 대상 자료의 선택 기준은 패션 잡지에 수록된 국내외 자료를 모두 포함한 광고 및 화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전면을 볼 수 있는 사진으로 전체 화면에서 신체 비율 2/3이상인 것으로 한정 지었으며, 조사 대상으로 선택된 사진은 총 5815건이며 이 중 팬츠는 1829건으로 조사되었다. 장식의 빈도 및 연도와 스타일, 소재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총 1971건의 장식에 대해 SPSS통계 패키지(v.13)

〈표 1〉 장식의 분석 유목

구분		종류
장식 유형	부착장식	단추, 지퍼, 포켓, 스트링, 벨트, 에퓨렛, 레이스, 리본, 비즈/스팽글, 파이핑/바인딩, 스티드, 탭, 고무단
	주름장식	턱/플리츠, 개터/서링, 리플/프릴,
	회화장식	스티치, 퀴팅, 자수, 프린팅, 어플리케
	해체장식	슬릿, 슬래쉬, 프린징, 헤지개 하기
스타일		미니멀 스타일, 로맨틱/페미닌 스타일, 매니쉬 스타일, 스트리트 스타일, 에스닉 스타일, 스포티/캐주얼 스타일, 아방가르드 스타일
	소재	직물, 편물, 대넒, 가죽(피혁), 망사/레이스

스타일은 패션사진의 전체적인 스타일로 판단하였다. 장식적인 것을 배제하고 기능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을 미니멀 스타일(Minimal style), 주로 남성적인 아이템으로 선택되어지는 팬츠에서 여성적이거나 로맨틱한 요소를 포함한 것을 로맨틱/페미닌 스타일(Romantic/Feminine style), 남성적인 아이템을 함께 착용하거나 남성적 요소를 포함한 것을 매니쉬 스타일(Mannish style), 다양한 민족풍의 요소가 혼합된 것을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 히피나 펑크, 그랜지, 힙합 등의 하위 문화의 요소를 포함한 것을 스트리트 스타일(Street style), 전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아방가르드 스타일(Avant-garde style)로 구분하였다. 소재는 패션 사진으로 인지 가능한 소재인 직물, 편물, 망사/레이스, 가죽, 테넌으로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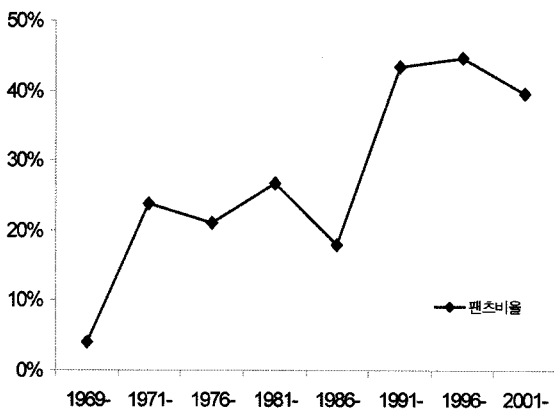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패션 잡지에 나타난 팬츠의 빈도 및 장식 경향

패션 잡지에 나타난 팬츠의 빈도 및 팬츠에 표현된 장식 유형, 패션 스타일, 소재별로 나누어 살펴본 장식 경향은 다음과 같다.

1) 팬츠의 빈도

패션 잡지에 선택된 총 5815건의 패션 사진 중 팬츠는 1829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팬츠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도별 팬츠의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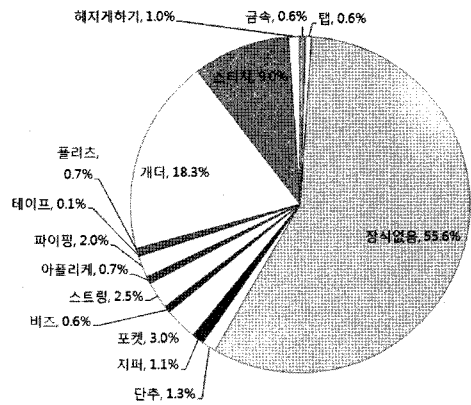
1960년대에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패션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는데(최해주, 정영선, 2001), 팬츠는 50년대의 작업복 의미에서 벗어나 여가를 위한 복장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잡지에서 바지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1970년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섬유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해외여행 자율화, 컬러TV와 외국영화의 보급 등으로 외국과의 문화접촉이 활발해져 여성들의 패션 감각이 세련되고 개성화된 시기로 기성복 착용이 증가하고(이호정, 1996) 미디어 및 맥시, 히피스타일의 블루진 등의 다양한 패션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팬츠의 비율도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글로벌리즘 아래 대중매체와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시기로 미니멀리즘, 민속풍, 복고풍 등 다양한 패션과 스포츠 웨어의 영향력 증대로 다양한 스타일의 팬츠가 유행하였고 팬츠의 비율도 매우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팬츠가 다양한 욕구와 개성을 표출하는 아이템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서 스포츠의 생활화, 레저문화의 확대 등 라이프스타일의 '웰빙' 경향이 강해지

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팬츠가 공존하고 있는데 특히 로맨틱 시즈의 영향은 팬츠에 장식을 부가하여 표현적 경향을 부각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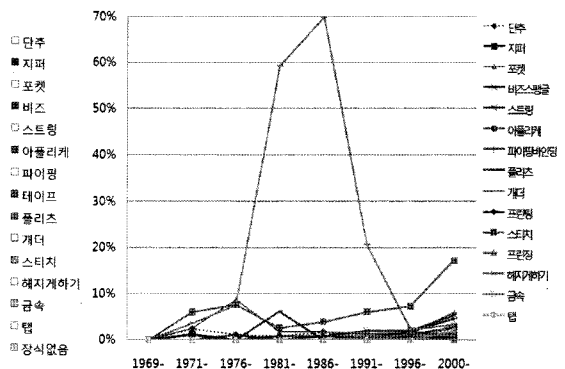
2) 연도별 장식의 빈도 변화

전반적인 장식의 빈도는 그림 13에서와 같이 장식없음(55.6%)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는데 이는 팬츠가 재킷이나 원피스, 스커트 등의 아이টে에 비하여 장식이 거의 없는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더(18.3%), 스티치(9%), 포켓(3%), 스트링(2.5%), 파이핑(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장식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는 남성화 경향으로 매니쉬 스타일의 팬츠에 주름이 잡힌 디자인이 많아 개더 등의 주름장식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장식이 거의 보이지 않다가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다양한 부착, 해체, 회화장식이 보여 지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장식적 표현경향이 팬츠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13> 전체장식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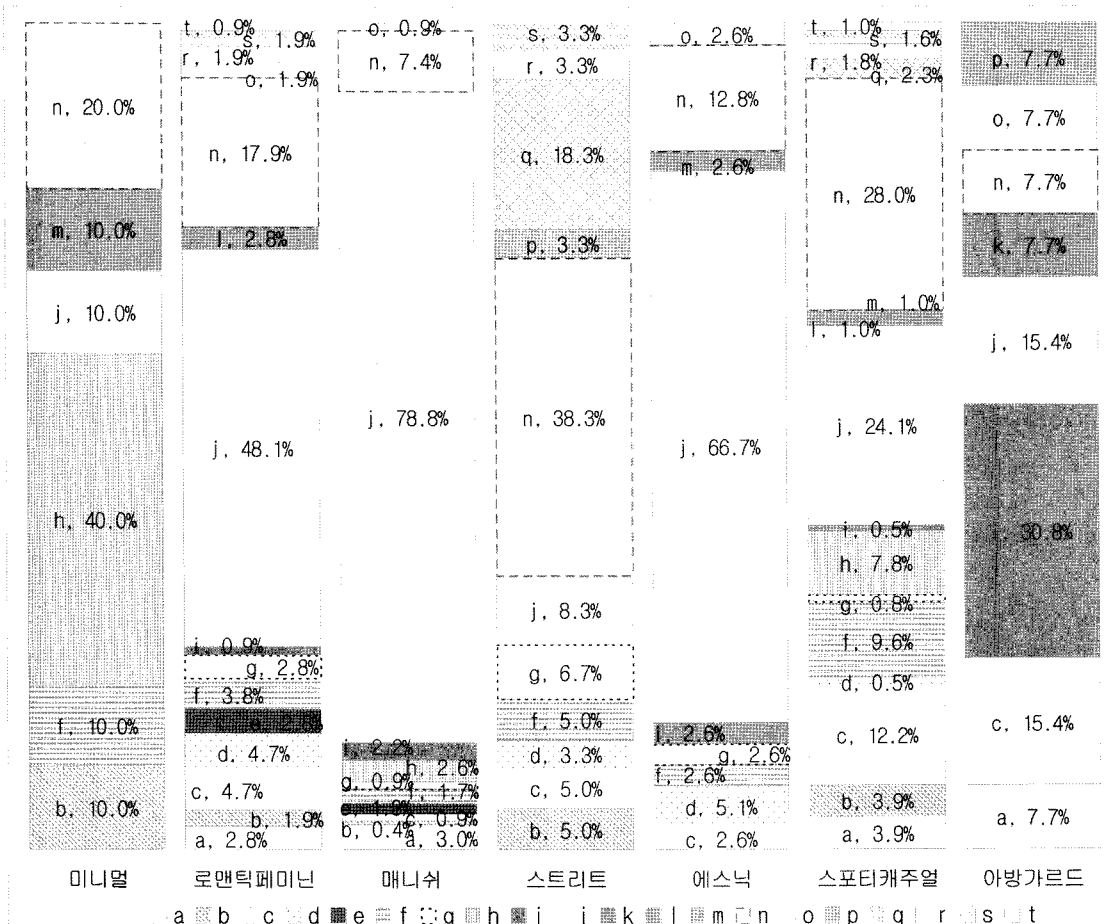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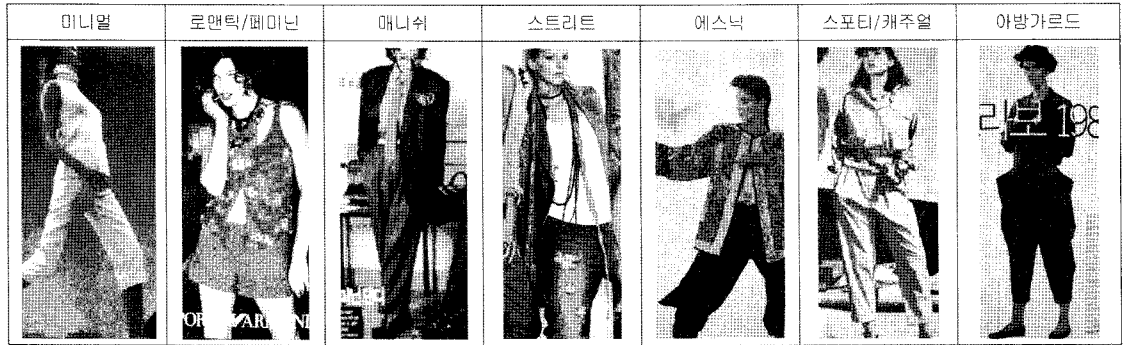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장식의 경향

3) 스타일별 팬츠 장식 경향

패션잡지를 분석하여 고찰된 스타일은 미니멀, 로맨틱/페미닌, 매니쉬, 스트리트, 에스닉, 스포티/캐주얼, 아방가르드로 구분되었는데, 이들 스타일별로는 스포티/캐주얼 스타일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니쉬, 로맨틱/페미닌, 미니멀 스타일의 순으로 나타났고 스트리트, 에스닉 및 아방

가르드 스타일은 빈도가 매우 낮았다. 이들 스타일에 반영된 팬츠 장식의 경향은 다음의 그림 15와 같다.

장식이 거의 없는 미니멀 스타일의 팬츠는 1960년대 후반과 1990년대 후반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1960년대에 출현한 미니멀리즘 사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니멀리즘은 90년대 들어서도 현대사회의 기능성 추구



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단순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패션에 재 등장하였으며, 이는 팬츠 스타일과 장식 경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니멀 스타일에서 나타난 장식은 파이핑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낮은 빈도이지만 장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어 최근으로 올수록 패션의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장식적 표현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로맨틱/페미닌 스타일의 팬츠는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는데 장식으로는 스티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고, 비즈, 애플리케, 개더가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장식이 거의 없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비즈, 애플리케, 프린팅 등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패션에서 '로맨틱'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식적 표현이 중요한 단어로 부각되었는데(이효진, 2003), 로맨틱/페미닌 스타일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곡선을 표현하고자 하는 관능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으며 팬츠에서도 슬릿, 슬래쉬 등의 장식이 보여 지고 있다. 이는 여성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개념에서 벗어나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정하면서, 여성 인체의 해방을 주장하며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사고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이경아, 전혜정, 2005).

매니쉬 스타일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가장 빈도가 높았는데 장식에서는 팬츠 슈트에 나타난 허리의 주름장식인 개더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나타난 남성적인 비즈니스 슈트 스타일인 파워드레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남성복에서 기원한 넓고 딱딱한 어깨 패드는 권위와 힘, 여성의 해방을 의미하는 80년대의 상징적 유행 이미지를 부여했고 재킷은 여성성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은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위치를 찾으려 하였으며(최호정, 하지수, 2005), 팬츠에서도 남성복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바지 허리부분에 개더를 주어 전문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가 가시화 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에는 단추, 애플리케, 개더가 약간 보이다가 1980년대에는 개더의 비중이 78.1%에 이르지만 1990년대부터 다시 미니멀리즘의 경향으로 장식없음의 비중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개더 다음으로는 파이핑과 스티치가 낮은 빈도이지만 보여지고 있다.

스트리트 스타일은 198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장식에서는 데님의 영향으로 스티치(39.3%)와 헤지계 하기(14.5%)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더, 애플리케, 지퍼, 포켓, 스트링, 금속 순으로 나타나 해체 장식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1990년대까지는 올풀기, 헤지계 하기 등의 빈도가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장식이 스티치, 애플리케, 비즈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그 빈도도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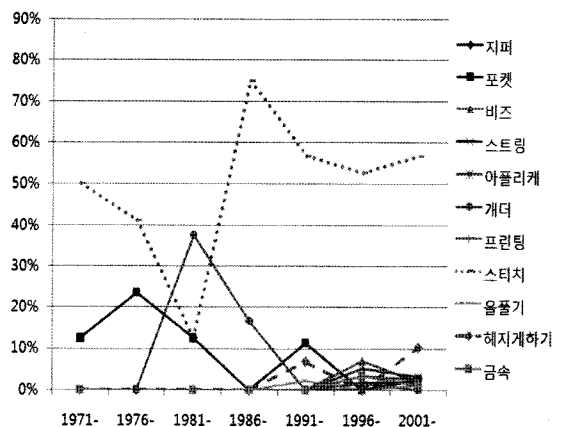
에스닉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빈도가 낮았는데, 1980년대 후반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1990년대 초반에 빈도가 높았다. 장식으로는 개더, 스티치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낮은 빈도이지만 다양한 장식이 나타나 다른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각 민족 특유의 민속복식을 현대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가 팬츠 패션에서도 나타남을 반영하였다.

스포티/캐주얼 스타일은 1970년대 후반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장식은 스티치(13.2%)와 개더(11.2%)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포켓(5.7%), 스트링(4.5%), 파이핑(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스티치의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는 파워슈트의 영향으로 개더(56.8%)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탭, 고무단, 금속 등의 장식빈도가 높아져 스포티즘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웰빙트렌드의 확산으로 편안함과 활동성을 추구하는 스포츠 캐주얼웨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자유롭고 편리하게 코디네이트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으며(김은경, 채금석, 2006), 이는 개인의 감성 표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패션에서의 캐주얼화는 단순히 정장을 입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패션에서 자기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신혜정, 하지수, 2006), 이는 패션에서 여유로움, 휴식, 그리고 스포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여 진다.

198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나타난 아방가르드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에 비해 매우 낮은 빈도를 보여 주었으며, 플리츠, 포켓, 개더 등의 장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4) 소재별 팬츠 장식의 경향

팬츠의 소재는 직물, 편물, 망사/레이스, 가죽, 데님으로



〈그림 16〉 데님소재의 장식경향

구분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팬츠에 사용된 소재 중 직물이 전체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진과 가죽의 빈도가 높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데님의 빈도가 높아짐을 볼 수 있었으며, 편물과 망사/레이스는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소재별 장식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팬츠 소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직물에서는 개더(21.8%) 등의 주름장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포켓(2.8%), 스트링(2.7%), 파이핑(2.7%) 등의 부착장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장식의 경향이 다양해졌음을 볼 수 있다.

팬츠에서 데님은 직물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는데, 데님은 현대 패션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현상의 상징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때에 따라 자유와 평등을 대표하는 자연스러운 복식미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관능적인 스타일이 되기도 하였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독창성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스트리트 패션에서 고감도 하이패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미지를 창조한 소재이다(최진경, 2003). 또한 다른 아이템, 장식과의 결합도 가능하며 장식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행해져 인류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사회심리를 대변하는 품목이 되었다(김승혜, 2004, p. 120). 이러한 데님소재에 나타난 장식으로는 소재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스티치, 포켓이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13에서와 같이 1980년대에는 파워드레싱의 경향으로 개더 등의 주름 장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울풀기, 헤지계 하기 등의 헤체 장식이 많아 하위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비즈, 스트링, 금속 등의 부착장식과 아플리케, 프린팅 등의 회화장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로써 스포티한 경향과 로맨틱한 경향 등의 다양한 혼합현상을 데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죽은 1980년대에는 유니섹스모드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인 장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소재와 마찬가지로 80년대 앤드로지너스 룩 등의 영향으로 개더 등의 주름 장식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켈팅이나 스티치 등의 회화장식이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다.

편물과 망사/레이스는 빈도가 낮았으며 특히 망사/레이스는 소재자체의 강한 장식성으로 다른 장식이 부가되지 않는 특성을 보여 주었다.

2. 팬츠 장식의 내적 의미

이상과 같이 패션 잡지를 통해 살펴본 팬츠의 장식 경향에서 다음과 같은 내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1) 표현적 기능 부각

스커트에 비해서 기능적인 형태인 팬츠는 장식성 보다는 활동의 편리함과 적합성으로 보편적인 이용이 이루어져, 1969년 이후 팬츠 장식을 살펴본 결과 장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패션이 개인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휘하며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미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김승혜, 2004) 팬츠에 장식성이 추가되고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팬츠가 현대인의 개성적인 욕구 충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아이템으로서 표현적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했음을 반영한다. 즉 그림 14와 같이 기능적인 기능을 담당하던 지퍼 등의 장식에서도 표현적 기능이 부가되어 좀 더 차별적인 자기표현이 가능해진 것을 볼 수 있다. 패션의 유행은 더 이상 디자이너에 의해 좌우되거나 상류층의 패션을 모방하지 않으며,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의 발생, 기성복의 다양화 등으로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찾고 자신의 내면적인 취향을 표현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장식이 이용되는 것이며, 팬츠의 장식도 이와 같은 표현적 기능이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새로운 여성미 표현의 매체

19세기 후반 성 역할의 변화와 여성해방운동으로 의복의 성 상징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는데, 여성들은 남성성의 기표인 바지를 착용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해지고자 하였으며(최현숙, 2000, p. 64), 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의 사회 활동 참여로 표현되기 시작한 매니시 룩과 1980년대의 파워드레싱은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넓고 딱딱한 어깨패드의 재킷과 함께 남성복과 유사한 형태로 허리에 개더를 준 팬츠 등으로 전문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는 여성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개념에서 벗어나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정하면서 팬츠에서도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곡선을 표현하고자 하는 관능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 그림 15에서와 같이 팬츠에 사용된 긴 슬릿은 여성스러움과 자신감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능성 추구라는 필요에 의해 여성들에게 채택된 팬츠에서 자수, 비즈, 리본, 프린팅 등의 장식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혼합되어 다른 스타일을 발전시켰으며 새로운 여성미를 표현하는 매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3) 문화정체성의 전달 매체

문화적 융합에 의한 탈 공간 현상은 패션에서의 이국취향 혹은 에스닉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양, 색채, 세부적 장식 요소의 직·간접적인 표현으로 강한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이는 팬츠에도 아플리케, 자수, 비즈, 패치워크 등의 다양한 장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장식적 표현이 더욱 증가되어 대량화에 의한 획일성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로운 미의식의 등장으로 하위문화와 하이패션 사이의 스타일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있는데 1960년대 히피, 1970년대 펑크, 1980년대의 힙합, 1990년대의 그랜지를 필두로 하위문화에서 발산된 트렌드는 현대인의 취향, 라이프스타일, 패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임은혜, 2003). 하위문화 스타일이 주류패션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과장, 반복 등을 통한 장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그림 16에서와 같이 헤지게 하기, 슬래쉬 등의 해체장식이 사용된 그랜지 스타일에서 볼 수 있듯이, 장식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는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장식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민족복식 뿐만 아니라 하위문화 등의 대중문화 요소를 반영하여 그 정체성을 전달하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V. 결론

팬츠 장식의 내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1960년부터 2005년까지 패션 잡지에 나타난 광고와 화보를 중심으로 팬츠의 빈도와 장식의 유형변화를 비롯하여 스타일, 소재와 관련지어 장식의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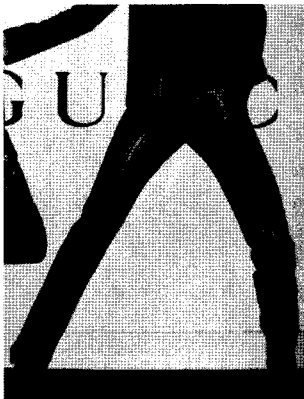
먼저 전반적인 팬츠의 비율은 1960년대에 매우 낮았으나 1970년대를 거쳐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45%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인 장식의 빈도는 장식 없음이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는데 이는 팬츠가 재킷이나 원피스, 스커트 등의 아이템에 비하여 장식이 거의 없는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특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추나 지퍼, 포켓과 같은 기능성과 연관된 품목 외에 개더, 스티치, 스트링, 파이핑 등 다양한 장식의 출현은 팬츠에 장식의 중요성이 증가됨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할 수 있다.

패션 잡지를 분석하여 고찰된 스타일은 스포티/캐주얼 스타일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니쉬, 로맨틱/페미닌, 미니멀 스타일의 순으로 나타났고 스트리트, 에스닉 및 야방가르드 스타일은 빈도가 매우 낮았다. 이들 스타일에 반영된 팬츠 장식도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빈도도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팬츠의 소재를 살펴본 결과 직물이 전체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데님과 가죽의 빈도가 높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데님의 빈도가 높아짐을 볼 수 있었으며, 편물과 망사/레이스는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데님소재에서는 장식의 빈도가 높았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정체성과 개성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팬츠 장식의 내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장식은 표현적 기능을 부각시킨다. 스커트에 비해서 기능적인 형태인 팬츠는 장식성 보다는 활동의 편리함과 적합성으로 보편적인 이용이 이루어져 왔다. 현대패션은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미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팬츠에 장식성이 추가되고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팬츠가 현대인의 개성적인 욕구 충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아이템으로서 표현적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했음을 반영한다.

둘째, 장식은 새로운 여성미 표현의 매체로 작용한다. 매니쉬 스타일과 파워 드레싱의 영향으로 착용한 딱딱한 어깨 패드의 재킷과 허리개더를 준 팬츠는 전문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이후 여성 인체에 대한 부정적 개념에서 벗어나 인체의 해방을 주장하고자한 시도는 팬츠에서도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곡선을 표현하고자 하는 관능성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필요에 의해서 여



〈그림 17〉 Elle 2001년 9월 Gucci 광고



〈그림 18〉 Elle 1994년 9월 화보



〈그림 19〉 Elle 2002년 3월 화보

성들에게 채택된 팬츠에서 장식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혼합되어 다른 스타일을 발전시켰으며 새로운 여성미를 표현하는 매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장식은 문화정체성을 전달한다. 문화적 융합에 의한 탈 공간 현상은 고유한 민속복식을 현대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팬츠에도 아플리케, 패치워크, 프린지 등의 장식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미의식의 등장으로 하위문화와 하이패션 사이의 스타일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져 히피, 펑크, 그린지, 힙합 등의 하위문화는 팬츠에서도 자수, 올풀기, 헤지계 하기, 스티드 등의 다양한 장식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장식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요소뿐만 아니라 하위문화 등의 대중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그 정체성을 전달하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익명성이 증대된 현대 사회에서는 정체성이 위기를 맞게 되고, 새로운 차별 또는 정체성의 획득이 추구되는데, 장식을 통한 자기표현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타인에게 각인시키고 개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팬츠 디자인의 개발 및 장식의 예측에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후속연구로 남성 팬츠 장식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컬렉션을 통한 다양한 장식 분석을 제안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미정(1987). 바지 패션에 관한 고찰-1978년에서 1987년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혜(2004). 20세기 여성바지 패션에 나타난 미적가치.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경, 채금석(2006). 현대 스포츠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7), 1054-1065.
- 박춘순(1991). 바지고.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정, 하지수(2006). 1990년대 이후 남성패션에 표현된 로맨티시즘. **복식**, 56(6), 96-113.
- 이경아, 전혜정(2005).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II). **복식**, 55(1), 59-72.
- 이경희, 김연희, 신은영, 이종숙, 정명희(2006). **복식의 아이덴티티**. 서울: 경춘사.
- 이은숙, 김새봄(2005). 여성 잡지 광고에 표현된 패션스타일 연구. **복식문화연구**, 13(2) 221-239.
- 이재영(2007). 복식사에 나타난 여성팬츠의 유형 변화와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호정(1996). **패션마케팅 & 패션트렌드 분석-1955-1995년**. 서울: 교학연구사.
- 이효진(2003). 21세기 로맨티시즘, 걸리쉬 패션. **복식**, 53(7), 111-123.
- 임은혁(2003).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펑크를 중심으로. **복식**, 53(2), 71-85.
- 정홍숙(200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최진경(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진즈웨어(Jeans Wear)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주, 정영선(2001).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1(7), 93-109.
- 최현숙(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호정, 하지수(2005). 우먼파워로 나타나는 최근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80년대 여성여피스타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55(2), 129-142.
-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 Beanim, L.(2001), *Pnats: a history afoot*. Paris: Vilo Publishing.
- Bond, D.(1992). **20세기 패션**. 정현숙(역). 서울: 경춘사. (1981년 원저발간)
- Crane, D.(2000). *Fashion and its social agendas: class, gender, and identity in clothing*.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01-102.
- Ewing, E.(1992).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B. T. Batsford Ltd.
- Hollander, A.(1996). **의복과 성**. 채금석(역). 서울: 경춘사. (1978년 원저발간)
- Lurie, A.(1986). **의복의 언어**. 유태순(역). 서울: 경춘사. (1983년 원저발간)
- Polhemus, T.(1997). *Streetstyle*. New York: Thames and Hudson.

접수일: 2008년 9월 28일

심사시작일: 2008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08년 10월 13일